

“게임중독,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당신이 ‘위너’입니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9월부터 영화 ‘위너’ 촬영
DVD제작 학교·기관 배포
게임중독 경험 학생 출연
예술인 재능기부 시민 후원

“저도 그렇지만 제 주위 친구들도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시간에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밤새 컴퓨터 모니터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청소년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게임중독으로 학교를 떠나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게임 중독에 빠졌던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를 다룬 영화에 배우로 출연한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재능기부로 영화 제작에 참여,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

번 영화는 시민과 기업의 후원을 받아 DVD로 제작,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과 학교에 배포될 계획이다.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에 따르면 9월 중순부터 청소년 게임중독 실태를 다룬 영화 ‘위너’(Winner) 촬영에 들어간다.
 이번 영화 제작에는 대안학교와 위탁 시설 등에서 게임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 10명이 배우로 출연하게 된다. 이들은 대학생 멘토 10여명에게 연기 지도를 받아 난생 처음으로 스크린 앞에 선다. 또 실제 영화 등을 제작하고 있는 스태프와 지역 연극배우들도 재능기부로 참여하게 된다.
 연출은 차두옥 동신대 방송연예학과

교수가 맡았고, 시나리오는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인 나정이 작가가 썼다.
 ‘위너’는 주인공인 두 명의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 학교와 가정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본인의 의지로 게임중독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게 된다. 스스로 게임중독에서 탈출, 본인 의지의 승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목을 ‘위너’로 정했다.
 차 교수는 “한편의 좋은 영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 청소년들은 영상매체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화만큼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며 “실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힐링’

을 선물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제를 경험했던 학생들만큼 진심이 담긴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없다는 생각이 게임중독을 경험했던 이들을 영화에 등장시키기로 했다”며 “최근 이 학생들과 만나 시나리오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나리오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과 영화를 제작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미혼모의 아픔을 그린 ‘희망날기’, 가출청소년 문제를 다룬 ‘컴백홀’, 성매매 유혹을 지적한 ‘하얀물고기’ 등을 제작해 전국 학교에

DVD 1500여개를 무료로 배포했다. ‘하얀물고기’는 차 교수가 연출했던 영화다.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청소년 문제 해결에 시민과 기업이 나설 수 있도록 게임중독예방 교육영화 ‘위너’ 제작을 위한 ‘만민동참 기금모금운동’을 펼친다. 모금운동 참여자들의 이름은 엔딩크레딧에 들어가게 된다. 문의 062-368-8041.
 한편 맥지청소년사회교육이 주최하는 ‘제15회 한국청소년영화제’다. 9월13~15일 광주시 유·스퀘어광장과 광주복합영상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영화제에는 전국 학교에서 190여점이 출품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청소년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수상작이 결정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그동안 가출청소년 문제를 다룬 ‘컴백홀’(왼쪽부터), 미혼모의 아픔을 그린 ‘희망날기’, 성매매 유혹을 다룬 ‘하얀물고기’ 등을 제작, 전국 학교에 배포했다.



반이정의 ‘팝아트’ 이야기

내일 상록인문학강좌 여섯번째

광주시립미술관은 27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미술평론가 반이정(사진)씨를 초청, 2013 상록인문학강좌 ‘인문학으로 문화읽기’ 여섯 번째 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강좌에서 반씨는 ‘팝아트, 예리한 양날의 칼’이란 주제로 현대미술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네오팝과 포스트팝 등 팝아트 전반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무라카미 다카시’전과 대구에서 진행중인 ‘쿠사마 야요이’전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반씨는 ‘중앙미술대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송은문화재단 미술상’ 등에서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을 지냈으며 ‘새빨간 미술의 고백’ ‘아블싸, 난 성공하고 말았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문의 062-613-71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체 게바라 의상’ 지휘자 징계 안한다

광주시가 광복절 경축식 때 합창단원에게 체 게바라 얼굴이 그려진 옷을 입고 공연하도록 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이모(37·여) 지휘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해당 지휘자에 대한 조사결과 체 게바라 티셔츠 의상을 단순하게 공연의상으로만 생각했고 특별한 의도나 배경이 없었다고 판단,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이다.
 시는 그러나 “축하공연을 주관한 지휘자로서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상을 착용함에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이념적 논란에 휘말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

지 않도록 해당 지휘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애초 행사에 참석했던 전총련 광주지방법보훈청장이 “국가 기념행사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가가 그려진 옷을 입고 공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삼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모씨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었다.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광주시 문화 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주 강정마을 보낼 책 가져 오세요” 내일, 나희덕 시인 시론서트

제주 강정 평화 책마을에 ‘책’ 10만권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광주에서는 지난달부터 1만권을 모으는 ‘광주일만대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책 모으기에 힘을 보태는 ‘나희덕 시인과 함께하는 평화 시론서트’가 열린다.

27일 오후 7시 광주 양림동미술관. 이날 행사에서는 강정 평화 책마을 선봉대로 활동중인 고재열 시·SHN 기자가 ‘제주 강정 마을의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하며 한희원, 정용주, 박종태씨 등이 평화 시론서트를 진행한다. 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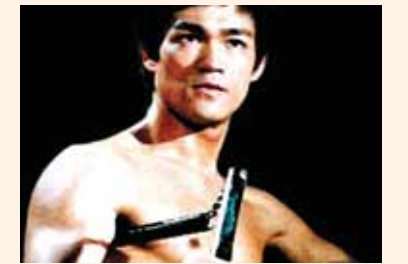
덕 시인은 강정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시를 낭독한다.
 강정마을에 보낼 책 한편 이상 지참하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70-8285-31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대 100’ 쌍절곤 결투신 부활

이소룡 결자 ‘정무문’ 30일부터 광주극장 상영

현란한 쌍절곤, 귀를 자극하는 기묘한 기합소리...



전 세계 수많은 영화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소룡의 결자 ‘정무문’이 개봉 40년만에 다시 스크린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극장은 오는 30일부터 ‘정무문(사진)’을 상영한다.

필름 리마스터링 과정을 거쳐 재개봉되는 ‘정무문’은 ‘용쟁호투’와 함께 이소룡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1973년 국내 개봉 시 흥행 1위를 기록, 수많은 이소룡 마니아를 만들어 내며 현재까지도 최고의 액션 영화로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1대100의 쌍절곤 결투신, 현란한 발차기 등은 시

대를 뛰어넘는 이소룡만의 리얼 액션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올해는 이소룡의 사망 40주기로 홍콩 등에서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던롭침대 & 온열/안마침대

소파 앤틱/모던

식탁/TV장

NAVER | 홍스페이스 |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 홍스페이스 | 1899-0240